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12호

칼럼 기고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

글 /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출처: 서울특별시체육회 블로그

21.04.19. 체육시민연대 성명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길 촉구한다.**

◎ 한국체육학회 2021 체육주간 기념학술대회 안내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학생선수 인권교육 의무화…체육시설에는 CCTV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선수 75% 욕설, 협박 경험…인권침해 가장 심각”

『문화체육관광부』

“코로나 피해 스포츠산업계 1005억원 지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연봉 5000만원 이하선수 위해 공익 에이전트서비스 실시”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인의 90%는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다.
비장애인도 어느 순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산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단지 먼저 장애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스포츠는 인간이 지닌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모습과 닮았다.
'장애인'과 '스포츠'가 더 자주 만나야 하는 이유다.

글 홍덕기 + 사진 동아일보유

장애가 장벽이 되는 사회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의 4.9% 수준인 약 255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존재한다. 그중 스포츠 활동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은 23.8% 정도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는 다음과 같은 장벽이 존재한다. 첫째, 장애인 체육시설의 접근성 문제다. 전국 200여 개 공공체육관 중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60여 개밖에 안 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수의 부족이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가 가능한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는 비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의 20% 수준에 못 미친다. 셋째,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장애 유형별 특화된 시설의 부족은 다양한 장애인 생활 스포츠 프로그램 경험의 제한으로 이어진다. 또한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적 시선과 비용 부담도 문제다. 넷째, 장애인 스포츠용품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경기용 휠체어의 경우 대당 수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고 수리 과정도 복잡하다.

다섯째, 장애인 운동선수의 인권침해 문제다. 2020년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력 및 학대 피해 경험이 22.2%, 성폭력 피해 경험이 9.2%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선수의 경우 인권침해 시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5.5%로 매우 낮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결 고리로서의 스포츠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여러 제한이 따르는 현실에서도 스포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결 고리가 되어준다. 시각장애인 스키는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와 방향과 코스를 안내하는 가이드 러너 선수가 한 팀으로 구성되는 스포츠다. 양재림 선수는 국내 유일의 국가대표 시각장애인 스키선수로 실명된 왼쪽 눈과 정상인의 10분의 1 정도인 오른쪽 눈을 가지고 스키를 탄다.

다음 장 계속

그녀는 가이드 러너인 고운소리 선수가 외치는 “업” “다운” 소리를 들으며 가이드 러너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며 슬로프를 활강한다. 고운소리 선수는 13년간 스키 선수로 생활하며 이루지 못한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은퇴 후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 러너로 평창 패럴림픽에 출전해 이룬다. 둘은 눈 위를 함께 달리며 서로의 눈이 되어 새로운 세상의 빛을 열어준다.



인간이 지닌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점에서 스포츠는 장애인이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모습과 닮았다(사진은 2019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점

코로나(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는 장애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도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중단과 돌봄 서비스의 공백 등으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고통받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장애 사실의 부인과 거부에서부터 분노와 불안, 타협, 절망과 우울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고통을 마주하고 끌어안는 일은 그만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장애 여부를 떠나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산다. 자신 내면 깊숙한 곳에 남은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장애인이 고립과 단절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치유와 회복은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배우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선사한다. 이는 많은 장애인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스포츠를 만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이유가 된다. 장애가 더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장애인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길 촉구한다.

빙상종목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 조재범 코치의 출현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빙상종목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빙상 선수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는 반인간적이고 반교육적 상황에 처해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생선수 50%, 실업선수 7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성인 실업선수와 대학 학생선수들의 약 30%,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20-25%가 주기적으로 매 맞고 운동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중 25%의 선수들은 매일 상습적 폭력에 시달렸다. 또한, 절대적 휴식이 부족한 훈련량도 문제였다. 더욱이 빙상계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선수들이 자기 잘못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폭력의 내면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의지도 사그러진 채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요 가해자는 지도자였다. 잘 지도해달라고 맡겨 놓은 지도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꼴이다. 진학이나 메달, 경기력 때문에 선수와 부모 모두 폭력을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기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은 도를 넘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무능, 일부 지도자들의 권력화, 빙상장 독점화, 국가대표 코치 및 선수 선발권, 대학특기자와 실업 선수 추천권 등의 비위행위들이 난무하는 종합 비리세트로 전락한 대한민국 빙상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사랑했던 빙상이 아니었다. 가혹한 인권침해와 폭력, 성폭력, 권력의 사유화와 독점화 위에 떠난 선수들의 메달은 오히려 고통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렇게 떠난 메달이 수백개라도 박수를 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분간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뿐만아니라 정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또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 빙상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예방 증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주요 가해자가 지도자인 점을 감안하여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폭력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약 재계약시 가해자징계 정보자료 제출, 인권서약서 작성,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등 다양하고 실효적 조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빙상연맹의 권력의 독점화, 사유화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지지 못한다면 빙상연맹이 있어야 할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체육시민연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선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단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체육시민연대

N E W



사단법인 한국체육학회



2021 체육주간 기념학술대회

새로운 출발
스포츠 그 이상을
위하여

S T A R T

S P O R T



YouTube

한국체육학회



4.23^{FRI} - 24^{SAT}

세부일정표

4.23^{FRI}

● 1일차 1부 [이제는 멈추고 학교체육의 미래를 준비한다.]

사회 : 정현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간	프로그램		비고	
2:00~2:20	개회사	김도균 회장 (한국체육학회) 유정애 회장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축사	유병채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기흥 회장 (대한체육회) 유승민 위원 (IOC)		
2:20~3:20	발제	국외 사례	일본의 학교 클럽활동 박영경 교수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일본 (15분)
		국외 사례	학교폭력 없는 스포츠, 안전한 스포츠 환경: 싱가포르의 사례 정호진 교수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국립교대)	싱가포르 (15분)
	국내 사례	발제	운동선수에서 학생선수로의 변화 양동열 교사 (간석초등학교)	초등학교 사례 (10분)
		국내 사례	엘리트 스포츠 속 학생선수, 우리는 학생입니다. 조성준 교사 (모현중학교)	중학교 사례 (10분)
		국내 사례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과거 현재 미래 유춘옥 교사 (인일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 사례 (10분)
3:20~3:40	휴식			
3:40~5:20	100분 토론	김대진 연구관 (교육부) 송윤석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송지환 교수 (전주교육대학교) 고재상 교사 (서울체육고등학교)	좌장 : 박정준 교수 (인천대학교)	

● 2일차 2부 [대학스포츠 인권, 변화를 위한 실현의 길]

사회 및 좌장 : 허정훈 교수 (중앙대학교)

시간	프로그램		비고
2:00~3:35	발제	대학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와 정책방향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15분
		공부하는 학생선수 학습권 황정현 (원광대학교 교수)	10분
		여성대학생 스포츠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0분
	휴식		
60분 토론	조옥연 (국민대학교 교수) 임용석 (충북대학교 교수)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주재현 (Epouse Earth 변호사)		

● 2일차 3부 [한국 프로스포츠가 가야하는 길]

사회 및 좌장 : 전용배 교수(단국대학교)

시간	프로그램		비고
3:35~5:15	발제	한국 프로스포츠산업의 지배구조의 한계, 가능성 그리고 과제 심찬구 대표 (스포티즌)	10분
		한국 프로스포츠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속에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미래 과업 김세훈 기자 (경향신문)	10분
		SSG랜더스는 프로야구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 김경민 책임 (4DREPLAY)	10분
	휴식		
70분 토론			

주최 사)한국체육학회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사)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주관 사)한국체육학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 대한체육회
한국학술정보 KISS사업부

 DESCENTE SPORTS FOUNDATION



학생선수 '인권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에는 CCTV 설치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을 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점검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된다.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빙상선수 75% "욕설 협박 경험" ... 인권침해 가장 심각

그래픽 진진우기자

NEWSIS

빙상 종목 선수들이 신체·언어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5일 '빙상종목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빙상선수 인권은 스포츠 분야의 전반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를 실시한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국가대표 코치에 의한 빙상종목 선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초·중·고 및 대학생 선수와 실업 선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66명의 빙상선수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빙상종목에서는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가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대학생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폭력 유형의 피해 경험이 전체 평균 응답률을 크게 상회했다"며 "특히 실업선수 그룹은 전체 응답률 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등 빙상종목 선수들이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욕설·협박,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 공포감을 주는 행위 등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빙상선수는 실업선수(75%), 대학생(50%), 초등학생(28.3%), 고등학생(25.9%), 중학생(19.9%) 순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 스포츠 종목 평균(초등학교 19.0%, 중학교 13.8%, 고등학교 14.6%, 대학교 31%, 실업팀 33.9%)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빙상 선수들 가운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은 실업선수(31.2%), 대학생(29.4%), 초등학생(26.2%), 고등학생(22.1%), 중학생(20.2%) 순이었다. 특히 손이나 발 또는 운동기구나 도구 등을 이용한 구타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빙상선수들 가운데 '운동 중 불쾌한 정도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는 총 23명이었다. 마사지, 주무르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4건), 성기 등 강제추행 피해(3건), 신체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1건, 여자 고등학생)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도자'를 꼽았다. 인권위는 "다른 종목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배나 동료 선수에 의한 (성)폭력이 증가하는데 반해 빙상종목의 주요 가해자는 학년 변동과 상관없이 지도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빙상종목은 빙상장을 기반으로 육성되기 때문에 학생선수 대다수가 학교 밖 개인코치에게 훈련을 받아 학교운동부 중심의 인권침해 예방 체계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지도자들에 의한 국가대표 선수나 코치의 선발권이나 실업팀과 대학특기자 추천에서의 전횡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에게 ▲빙상종목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선수·지도자 및 임직원의 인권 행동규범 등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학교 밖 개인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도 빙상종목 인권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과외교습'에 체육 교습 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의 개정을 추진, 학교 밖 체육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 피해 스포츠산업계 1005억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만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 1005억원을 편성, 투입해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받는다.

실내체육시설업계가 폭넓은 스포츠 용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관련 예산 136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스포츠 용자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기간 없이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스포츠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창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 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1개사 당 창업 보육과 사업화자금 49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중소 스포츠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중소 스포츠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는 178개사가 신청해 4.1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스포츠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 31억원을 확보해 30개사를 더 지원한다. 이는 별도의 추가 공모 없이 기존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상담 통합창구와 체육공단 누리집(www.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창구에서는 문체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재난지원금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각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연봉 5000만원 이하 선수 위해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실시

스포츠경향 2021.04.16
김세훈 기자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2021년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는 협회가 프로스포츠 대리인 제도 정착과 저연봉 프로 선수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2021년도 공익 에이전트 총 65명(야구 44명, 축구 22명. 이중 축구·야구 모두 보유 1명) 등록을 마치고, 9월 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의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내 저연봉 프로 선수로 K리그와 KBO에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선수 중 공고일 기준 기본급 연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선수다. 지원을 원하는 선수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도 공익 에이전트의 주요 이력과 정보를 참고하여 희망하는 공익 에이전트와 서비스 분야를 온라인 서식에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선수가 신청을 완료하면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를 연결해준다. 공익 에이전트는 매칭된 선수에게 △경기(훈련) 용품 후원 유치 △맞춤 분석 자료 △법률·세무 자문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협회에서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는 32명 공익 에이전트를 통해 저연봉 프로 선수 144명이 총 216차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체육시민연대 사무국 소식

04.15 / 제3차 집행위원회 개최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하키협회 A감독 폭행징계 적용기간 조작으로 드러나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341>

[김식의 엔드게임] 학폭과 쌍둥이의 고소,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033608

광주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 전환' 추진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39916>

순천시, 체육예산 158억원 배정... '스포츠 복지 3대 전략' 수립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321391

고창군, 문체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 공모사업선정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847>

[김세훈의 스포츠IN] 도쿄로 가는 올림픽 대표팀을 위한 3가지 제안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4181229003&sec_id=530101&pt=nv

상계역 수락산 자락에 종합 스포츠타운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1583821>

영덕군, 축구+관광 연계 스포츠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8338&clD=10810&pID=10800

코로나로 부족한 세금 스포츠 도박으로?...美 26개주 '합법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6/202104160215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